

## 1 개요

각시당본풀이는 제주시 삼도동에 있던 각시당에 얹힌 무속신화이다.

옥황상제 말젓딸[末女]이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인간세상으로 귀양을 당하여 아이들의 산육을 돌보는 당신으로 좌정하였다.

## 2 내용

옥황상제의 말젓딸이 궁녀와 시녀를 굶긴 죄로 인간세상으로 귀양을 당한다. 말젓딸은 중의 행색을 하고 삼내나목골로 대밭으로 내려간다. 주민들의 꿈에 나타나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산육신의 구실을 한다. 주위가 부정하게 되니 막대동상 지경의 오랜 팽나무 아래로 옮긴 뒤에도 오랫동안 당신으로 섬김을 받는다.

## 3 특징

이달춘본 각시당본풀이는 줄거리로만 간략히 이루어진 자료이다. 당신본풀이 가운데 드물게 적강화소를 근간으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옥황상제 말젓딸이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인간세상으로 내쳐져 중의 복색을 하고 불도로 대접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할망본풀이의 멩진국따님 좌정담이 적강화소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시당본풀이는 특별한 사례일 수 있다. 당신이 천상적인 존재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옥황상제의 딸이라고 한 것은 요왕황제의 딸이라고 하던 것의 변형일 수도 있다. 각시당은 보편적인 사례로 보면 홀로 좌정한 여신의 당이다. 그러나 처녀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앙은 특별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해도 좋다. 보편적인 사례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보편적인 사례의 변모로 이해해야 마땅하다.

각시당은 제주시 삼도동 남문통에 있던 당이다. 옥황상제 말젓딸, 삼천벵메, 짐씨영감 등을 함께 모셨다. 제물로는 백메, 벵돌레, 늦기 당산메, 청감주, 계란안주 등을 올렸다. 옥황상제 말젓딸은 산육신임에도 일뤼당신과는 다른 성격을 지녔다. 불도라고 하면서 불

교적인 속성이 더해지자 돼지고기를 금기하는 신으로 관념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짐씨영감은 당의 내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인물의 영혼이다. 각시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전되었는데, 이는 시가지의 변모에 따른 것이다.

#### **4 핵심어**

옥황상제 말젓말, 귀양정배, 적강, 삼내나무골, 산육신, 막대동상, 삼도동, 남문통, 짐씨영감 삼천벙메, 처녀당

#### **5 원전 서지사항**

각시당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6 관련 자료**